



알랭 로브그리에 '질투' <민음사刊>

관객들이 북적거리는 최신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외면하고, 지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에 가서 고집스럽게 예술영화란 편을 감상한 기분이다. 품 잡고 보긴 했지만 역시나 난해하기만 한 프랑스 영화,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대단한 감동이라도 받은 양 눈을 지그시 감는다.

독법의 수준이 낮아서였겠지만 프랑스 작가 알랭 로브그리에의 소설 '질투'를 읽을 때도 그랬다. 잘 넘어가지 않는 페이지, 알아먹을 수 없는 표현들, 이걸 계속 읽어야 하나? 목직한 회의 때문에 괴로웠다. 과거 삼중당 문고가 연상되는 민음사 세계문학총서였다. 보통 소설책 뒤쪽을 보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평론가 해설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소설만큼은 꼭 '해설'이 필요했다.



'질투(la jalousie)'라는 프랑스 말에는 블라인드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블라인드에 감춰진 카메라로 장면을 찍는 것처럼 모든 사물과 정황을 관찰한다. 아내조차도 A로만 지칭될 정도로 인물과 거리를 뒤흔디니,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것과 같다. 소설이 시작되고 한참동안을 기다리고 테라스의 그림자와 각도, 난간의 나뭇결, 페인트칠 상태 등을 동위각, 사다리꼴, 수직, 직각 같은 수학시간에나 다룰법한 기하학적 묘사로 일관함으로써 읽는

블라인드에 감춰진 질투의 눈

전통 소설의 기반에 반기를 든 '누보로망' 계열인 만큼, 작가답시고 작품 속에 개입하여 감정적인 스토리 전개를 했던 기존 소설 작법과는 확연히 달랐다. 흥미 있는 내러티브나 서사의 즐거움은 없더라도 낯선 기법만은 음미할 만하다. 이렇게도 소설이 될 수 있구나. 기발함에 무릎을 친다. 알랭 로브그리에의 글 쓰는 작가였지, 이야기꾼은 아니었다.

즐거리라 해봐야 아주 단순하다. 프랑스 식민지로 추정되는 아프리카의 어느 바나나 농장을 배경으로, 남편으로 추정되는 서술자가 아내와 이웃집 남자를 바라본다는 내용이 전부다.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두려운 남편에게 불만의 징후와 자폭적 발상이 일렁일 법도 하지만 끝내 감춰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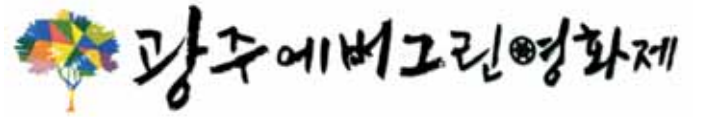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사람을 지치게 한다. 집요한 병적인 묘사는 지독한 질투심의 또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불륜이 의심되는 아내를 관찰하는 남편에게서 침착한 감정 통제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카메라가 역할을 대신한다면 고통 받는 내면을 감출 수 있겠다 싶었는지 부과인더에 사로잡힌 현상과 사물만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무심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작가는 제시만 할 뿐이니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의 시간적 전개를 무효화시킨 체 주체적으로 소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에게 부여한다. 그런데,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 대상을 관찰하고 있던 독자는 깜짝 놀란다. 자신도 모르게 서술자의 질투심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도 암시도 없이 끝내버리는 결말에 독자는 그 다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과연 아내와 이웃집 남자는 부정을 저질렀을까. 어찌 알겠는가. 작가가 알려주지 않으니.

카메라 든 시니어들, 세대를 넘어 영화로 소통하다



그래머로 활동했던 유맹철씨와 함께 행사를 직접 기획하느라 분주하다.

개막작은 '엄마의 반지'다. 군 제대를 앞두고 남자는 탄피로 애인에게 줄 반지를 만들지만 애인은 이미 변심한 지 오래. 그 반지는 어머니에게 전해지며 모자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놀이패 신병의 박강의

광주영상미디어클럽 회원

내달 1~3일 영상문화관

개막작 '엄마의 반지' 등 상영

11월1일 이정국 감독 강연도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광주영상미디어클럽 회원들은 내친 김에 오는 11월1일~3일까지 제1회 광주에버그린영화제도 개최한다.

씨와 장도국씨가 주연을 맡았다. 회원 서금례씨와 강홍길씨는 이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촬영하기도 했다.

'카메라를 든 시니어들' 섹션은 미디어 클럽 회원들이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을 살필 수 있다.

회원 강홍길·나상용씨가 공동 감독한 '허름한 의자'(2012)는 제7회 정읍실버영화제 최우수상 수상작이다. FTA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성공을 일구려는 나주 화답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회원들은 '편지'의 이정국 감독과 함께하는 '생활 연기 워크숍'을 통해 연기 수업도 받았다. 그들의 연기는 말 그대로 생활에서 자연스레 우러나는 연기다.

제50회 대중상 단편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했던 '가화만사성'(2012)에서는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로 분하고, '늘 푸른 인생'(2011), '평촌 가

는길'(2013), '무등산 아리랑'(2011) 등 다양한 작품에서 회원들의 연기를 만날 수 있다.

'한국고전영화특선'에서는 신상옥 감독의 '동심초', 김수용 감독의 '갯마을'을 만날 수 있으며 '영화 속 시니어' 섹션에서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국내 개봉 당시 잔잔한 반응을 일으켰던 프

랑스 영화 '아무르', 완벽한 스치를 만들기 위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 다큐 '스시장인: 치료의 꿈', 스티븐 위커의 '로큰롤 인생' 등을 만날 수 있다.

1일 오후 5시40분에는 이정국 감독이 '시니어 감독들을 위한 10가지 팁'을 주제로 강연도 한다. 문의 062-225-3393. /김미은기자 mekim@



전시·음악 만나러 광주극장 가는 길

오늘부터 영화 거장 '아키 카우리스마키 특별전'

정다운 개인전... 축하공연·작가와 대화시간 마련

에 가다'(1989), 2002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과거가 없는 남자'(2002) 등 12편이 상영된다. 그의 작품을 섭렵한 이들은 그가 오락적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예술영화의 전통을 유지하는 감독이라고 평한다. 흔히 예술영화가 갖고 있는 난해함을 비껴간다는 설명이다. 최소한의 대사와 연기, 절제된 카메라 움직임과 세트, 풍자와 블랙 유머가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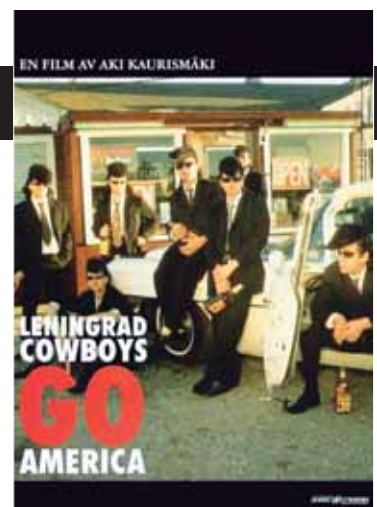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

에 가다' 등을 모델로 자신만의 예술론을 펼치고 있는 작가다.

광주극장 주요영화화합에 참여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아키 카우리스마키 특별전'에 맞춰 감독의 페르소나로 '과거가 없는 남자'를 통해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카티오우티넨의 초상화도 선보인다.

25일 오후 7시 전시 오프닝에는 두 팀의 축하공연과 장식원 미술평론가(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그밖에 관객들의 초상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로잉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28일(오후 1시30분~3시30분, 오후 7시~9시30분) 광주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시네마 미디어 아트' 행사도 열린다. 광주극장을 일종의 '갤러리'로 활용해 미디어아트 작품과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용호·김태은·박제성·박준범·신기운씨 등이 참여한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8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기동 제일OP 901호

▶분양 평수 53P

▶20층 건물중 9층 코너, 창가, 전망좋은

▶시세 - 1억 7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 - 1억 2000만원

오피스텔 매매

주인 직매 H. 010-4667-9300

수기동 제일OP 2001호

▶분양 평수 77P

▶20층 건물중 20층 코너, 창가, 전망최고

▶시세 - 2억 5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 - 2억 2000만원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대지148P, 건물 480P, 신축건물

▶5층 건물(1층 82P, 2~5층 각100P)

▶감정가/시세 - 23억원

▶임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대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매매가 - 22억원(조정가능)

▶수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 직매 H. 010-4667-9300